

# 육계 계열화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

편집부

## 1. 육계 계열화 사업의 개념

- 계열화는 통합경영체 중심의 생산·가공·유통의 일관 경영을 통해 사육농가의 소득안정과 산업발전을 위한 경영방식
- "통합경영체"는 병아리·사료 등 자재공급, 농가 사육지도, 도계 및 판매를 담당하고, 농가에게 사육수수료 지급
- "사육농가"는 축사시설과 노동 제공, 전문경영체의 사양·질병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사육관리

## 2. 육계 계열화 사업 추진 배경

- 육계산업은 70년대 양적 확장기를 지나면서 심한 격동 경험
- 수급 및 가격 불안정으로 산업기반이 무너질 위기에 처함
- 고질적인 수급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 필요성 대두

## 3. 육계 계열화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및 업계 노력

- 1984년도에 축산법 제13조의 3(가축계열화생산)을 신설하여 계열화사업 지원

• 1999년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가축의 계열화생산 조문이 삭제되었으나 농림사업시행지침(가축의 계열화사업)을 통해 가축계열화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음.

- 예산규모 : ('84~'06) 139,940백만원  
→ ('09) 10,000 → ('10) 10,000 → ('11) 12,000

- '10년 현재 시·도에 등록된 계열화업체 수는 총 32개소

• 업계에서도 가축계열화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종계, 사료 병아리 등 각 부문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왔으며 농가의 권리와 소득증대를 위해 농가협의회 구성, 친목모임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
- 농가별 자체사육 또는 계열업체와 계약사육 가능하나, 계약사육 비중이 90% 이상

## 4. 육계 계열화 사업의 성과

• 사육농가의 지속적인 소득향상(하림 사례)

- '09년 연평균 농가 조수의 92백만원, '93년 대비 7.6배

※ ('08) 일반농가소득 31백만원, 도시근로자가구 47백만원

-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
- 사료요구율 개선, 육성률 제고, 사육기간 단축
- 품질향상과 다양한 제품개발을 통한 소비확대
- 1인당 소비량 : ('00) 6.9kg → ('05) 7.6 → ('09) 9.6
- 규모화, 전업화 진전으로 생산액 획기적 확대
- 생산액 : ('00) 8.2천억원 → ('05) 11.1 → ('09) 20.2
- ※ 농업총생산액(43조원)의 4.7% 점유
- 육류 중 자급률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수입개방 대응 유리
- '09년 자급률 : 닭고기 85%, 돼지고기 74%, 쇠고기 42%

## 5. 계열화 사업에 대한 시각차

- 계열업체 및 대다수 농가 : 현행체제를 유지하되, 사육시설현대화를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 요청
- 양계협회와 일부 농가 : 농가에 대한 이

익배분이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협동조합형 계열화사업 등 요청

## 6. 계열화사업 발전 방향

- 계열화의 개념, 목적 등을 법률로 규정하여 가축계열화 및 육계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
-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의 갈등구조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
-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수급조절 등 법률적인 근거 마련
- 종계장 등 사육시설현대화 적극지원 